

# 멕시코 쇠고기산업 개황

멕시코는 쇠고기 생산량 및 소비량면에서 세계 제6위의 규모를 자랑하며, 동시에 제5위의 쇠고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1994년에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미국, 캐나다 등 가맹국간 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쇠고기 생산도 한층 활발하게 되어, 이들 3개국이 세계 쇠고기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멕시코 쇠고기산업에 대해, 최근의 수급동향과 쇠고기무역 상황 등에 대해 개요를 정리하고, 동시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식육처리시설 소개한다.

## 1. 쇠고기산업 개관

### 1.1. 사육지역과 형태

#### (1) 사육지역

멕시코에서 소는 국내(1시 31주) 전역에서 사육되고 있지만, 남부의 베라크루스(Veracruz)주에서 치아파스(Chiapas)주 중앙, 북부의 할리스코(Jalisco)주에서 시나로아(Sinaloa)주에 걸쳐 많이 사육되고 있다(그림 1, 그림 2).

그림 1 소의 지역별 사육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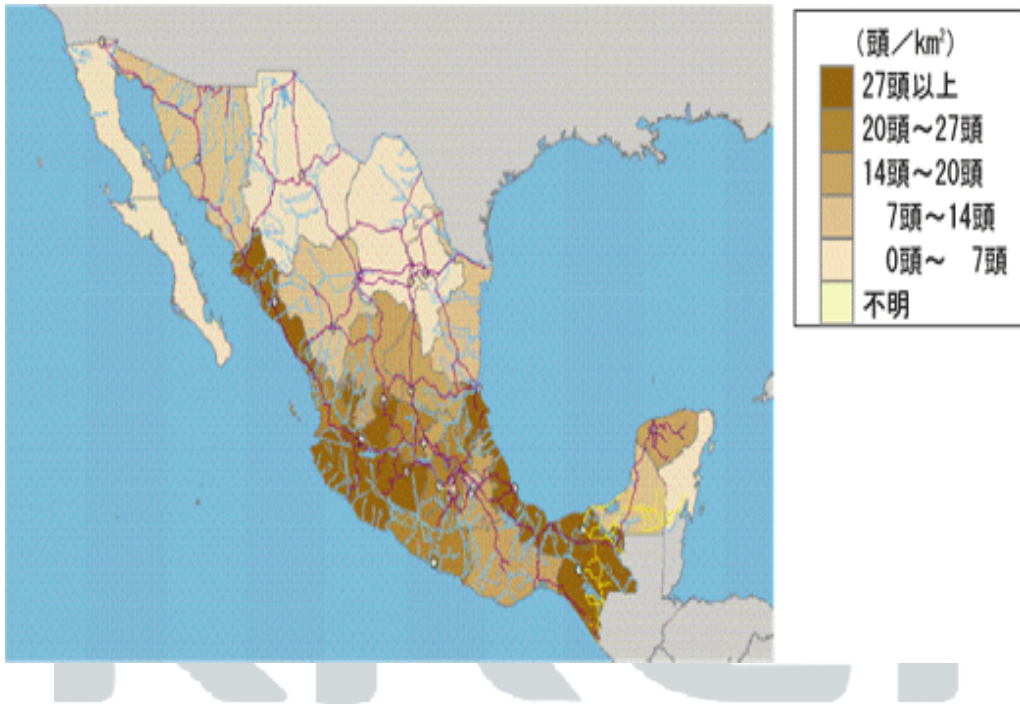


그림 2 멕시코의 주명



(1) 북부지역(12주) Baja California(BC: 바하·칼리포르니아 주), Baja California Sur(BSC: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주), Sonora(SONL: 소노라 주), Chihuahua(CHI: 치와와 주), Sinaloa(SIN: 시나로아 주), Nayarit(NAY: 나야리 주), Durango(DGO: 두랑고 주), Coahuila(COA: 코아위라 주), Zacatecas(ZAC: 사카테카스 주), San Luis Potosi(SLP: 상 루이스 포토시 주), Nuevo Leon(NL: 누에보 레온 주), Tamaulipas(TAM: 타마우리파스 주)

이 지역은 미국과 국경을 접해 있는 건조·반건조 지역의 태평양측에는 칼리포르니아 반도가 뻗어 있고, 본토에는 치와와, 소노라 두 주에 펼쳐져 있는 사막과, 동서의 웨라마도레 산맥에 둘러싸인 표고 1000~2000 미터의 멕시코 고원이 펼쳐진다. 관개 농업이 주체가 되고 있다.

(2) 중앙지역(11주 및 멕시코시) Aguascalientes(AGS: 아그아스칼렌테스 주), Jalisco(JALL 할리스코 주), Colima(COL: 코리마 주), Guanajuato(GTO: 과나화토 주), Michoacan(MICH: 미초아칸 주), Queretaro(QRO: 케레탈로 주), Mexico(MEX: 멕시코주), Hidalgo(HGO: 이달고 주), Distrito Federal(DF: 연방구: 멕시코시), Morelos(MOR: 모렐로스 주), Tlaxcala(TLAX: 트라스칼라 주), Puebla(PUE: 푸에블라 주)

이 지역은 온난·반건조 지대로, 우기와 건기가 있다. 멕시코시에 있는 표고 2000 미터를 넘는 멕시코 분지의 북서부, 케레탈로 주, 과나화토 주, 여기에 태평양측의 할리스코 주에 이르는 일대는 바히오 지역이라 불리는 대곡창지대 이다.

(3) 남부지역(8주) Veracruz(VER: 베라크루스 주), Tabasco(TAB: 타바스코 주), Campeche(CAM: 캄페체 주), Yucaten(YUC: 유카탄 주), Quintana Roo(QROO: 키타나 로 주), Guerrero(GRO: 게레로 주), Oaxaca(OAX: 오아하카 주), Chiapas(CHIS: 차아파스 주)

이 지역은 열대습윤 지대로 북으로는 멕시코 만안과 유카탄 반도, 남으로는 태평양측에 남쉐라마도레 산맥이 뻗어 있고, 남동부로 과테말라와 베리즈에 접해 있다. 농지의 관개율은 낮다.

## (2) 생산형태

멕시코의 소 생산은 북부 및 중부지역과 남부지역과는 서로 다른 생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부지역에서는 중소규모 축산농가가 브라만 종과 유러피안계 품종을 중심으로 포육·육성 경영하고 있다. 이들은 포육·육성 후, 비육용 육우로 미국으로 생우상태로 수출되거나 국내용으로 보내기 위해 그대로 목초 비육되는 경우가 많다. 그레인페드(grain-fed: 곡물비육)용으로 사육되는 것도 있지만, 극히 일부이다.

북부지역의 비육용 육성우가 미국 내의 비육용 육성우에 비해 가격면에서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피드롯(feed-lot: 비육장)으로부터의 수요가 강하다. 그 결과, 최근에는 멕시코 국내에서 생산된 소의 약 25%가 이들 지역에서 미국의 피드 롯으로 비육용 육성우로 수출되고 있다. 중부지역도 북부지역과 마찬가지로 포육·육성농가가 중심이며, 이 지역은 멕시코 곡물생산 지대이기 때문에 소수이긴 하지만, 피드롯에서 곡물비육을 하는 곳도 있다.

한편, 남부지역은 체브 종, 브라만 종 및 브라만 종과의 교잡종을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어, 거의 전체의 소가 국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육형태는 방목이 중심으로 경종과의 복합경영을 형성하고 있는 생산농가가 대부분이다. 이들 생산자의 대부분은 낙농과 복합경영을 하고 있으며, 각각(육용우 또는 유용우)의 가격변동을 감안해 보다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사육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1991년에 멕시코 정부가 조사한 전국규모의 조사에서 소 생사자 총 호수는 120만호로 추정되었으나, 현재에는 70% 이하로 감소하여 약 80만호

의 소 생산자가 있다고 한다, 이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계속된 한발에 의해 중소규모의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사육규모로 보면, 여전히 연중 소규모 생산자가 60%를 점하며, 대규모 생산자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축종을 보면, 양돈농가의 40%, 양계농가의 50%가 대규모 생산자이며, 소 생산자에 비해 규모의 확대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2. 수급동향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서비스국(USDA/FAS)이 정리한 멕시코의 생우 수급동향은 <표 1>과 같다.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여 쇠고기무역금지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생우 수입은 전년대비 74%가 준 5만 3,000두까지 감소하였다. 2004년 송아지 생산두수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900만두이다. 2004년 미국에서 생우 가격이 높아, 수출두수가 전년대비 17%가 늘어나 145만두로 증가하였다. 2005년말 사육두수는 같은 해 도축두수가 907만 5,000두까지 증가하여 1,770만 9,000두로 2000년에 비해 약 30%나 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미국, 캐나다 쇠고기무역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수급동향도 BSE 발생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측된다.

USDA/FAS가 정리한 멕시코 쇠고기 수급동향은 <표 2>와 같다. 멕시코의 쇠고기 공급 중 약 20%를 점하는 27만톤(2004년)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며, 멕시코 수입량은 세계 제5위이다. 쇠고기수출량은 이제까지 수 천톤 정도로 적었지만, 미국, 캐나다의 BSE 발생 영향 때문에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 2.3. 가격 동향

최근, 멕시코의 쇠고기 가격은 높게 유지되는 추이를 보였다. 1995년에서 96년에 걸쳐 심각한 한발에 의해 사육두수가 감소한 점과 사료가격이 상승 경향에서 추이하였다는 점 등이 그 요인이다.

표 1 생우수급동향, 2000~05년

단위 : 천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초사육두수	23,715	22,551	21,296	20,519	19,524	17,709
송아지생산두수	8,600	8,750	8,800	8,900	9,000	9,250
생우수입두수	235	195	200	53	60	65
계	32,550	31,496	30,296	29,472	28,584	27,024
생우수출두수	1,224	1,280	900	1,240	1,450	900
도축두수	8,200	8,300	8,310	8,320	9,075	8,700
폐기 기타	575	620	620	388	350	350
연말사육두수	22,551	21,296	20,466	19,524	17,709	17,074
계	32,550	31,496	30,296	29,472	28,584	27,024

자료: USDA/FAS

표 2 쇠고기수급동향, 2000~05년

단위 : 천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1,900	1,925	1,930	1,950	2,150	2,070
수입량	400	430	484	370	270	320
계	2,300	2,355	2,414	2,320	2,420	2,390
국내소비량	2,279	2,327	2,390	2,288	2,390	2,355
폐기 기타	20	20	20	20	20	20
수출	1	8	4	12	10	15
계	2,300	2,355	2,414	2,320	2,420	2,390

자료: USDA/FAS

미국 내 생우가격은 사육두수 감소 등 때문에 높은 추이를 보였다는 점을 배경으로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생우 수출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국내 소비용의 도축두수가 감소한 것도 국내 쇠고기가격 상승을 부추켰다.

최근 멕시코 의 높은 경제성장에 의해 중류계층 소비자의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쇠고기 가격이 높게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월별 소매가격, 생우 시장 거래가격, 지육도매가격 추이는 <표 3, 4, 5>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격은 상승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각 유통단계의 가격차 추이를 보면, 생산자로부터 식육 패커(packer, 도매가격)와의 가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에 있는데 대해, 식육 패커로부터 소매단계와의 가격차는 거꾸로 증가 경향에 있다. 이는 식육 패커의 이익률은 감소 경향에 있지만, 소매단계에서의 이익률은 증가 경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1.4. 식육 소비량

멕시코의 식육소비량은 국민의 구매의욕이 높아지는데 힘입어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축종별로 보면, 1993년의 연간 소비량은 2003년과 비교하여 쇠고기 24% 증가, 돼지고기 26% 증가로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

표 3 쇠고기 소매가격(로인) 월별 평균, 2001~03년

단위 : 페소/kg

월	2001	2002	2003
1	44.34	47.9	48.01
2	45.38	48.13	48.47
3	45.90	48.08	49.00
4	46.35	47.86	48.97
5	46.84	48.12	49.35
6	46.64	48.66	48.36
7	46.63	48.26	48.54
8	46.92	47.54	48.63
9	47.10	47.38	49.16
10	47.49	47.73	50.41
11	47.61	47.89	51.14
12	47.37	48.25	51.96

\* 1 페소=약 110원, 자료: 푸로마

표 4 생우시장 거래가격 월별 평균, 1998~03년

단위 : 페소/kg

월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12.45	13.04	14.3	14.25	15.31	15.2
2	12.47	13.28	14.30	14.60	15.33	15.26
3	12.48	13.33	14.40	14.64	15.38	15.26
4	12.47	13.28	14.15	14.48	15.42	15.35
5	12.52	13.36	14.40	14.92	15.5	15.38
6	12.39	13.44	14.40	14.96	15.42	15.49
7	12.43	13.48	14.65	15.03	15.64	15.45
8	12.64	13.47	14.70	15.29	15.39	15.32
9	12.61	13.59	14.40	15.15	15.3	15.36
10	12.71	13.74	14.50	15.14	15.23	15.54
11	13.05	13.77	14.70	15.28	15.21	15.9
12	13.07	13.82	14.70	15.29	15.22	16.46
연평균	12.61	13.47	14.47	14.92	15.36	15.5

\* 1 페소= 약 110원, 자료: 푸로마

표 5 지육 도매가격 월별 평균, 1998~03년

단위 : 페소/kg

월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18.85	19.35	22.04	23.11	24.58	24.04
2	19.04	19.1	22.2	23.33	24.72	24.18
3	19.08	19	22.36	23.54	24.83	24.3
4	19.12	18.95	22.51	23.72	24.68	24.19
5	19.04	18.85	22.55	23.77	24.29	24.1
6	18.98	19.1	22.77	23.8	24.27	24.11
7	19.12	19.25	22.68	23.87	24.24	24.02
8	19.5	19.6	22.94	23.25	24.15	24.11
9	19.9	19.75	22.76	23.9	24.13	24.08
10	20.26	19.75	22.75	24.01	24.17	24.17
11	20.38	19.75	22.83	24.01	24.06	24.91
12	20.42	21.75	22.88	24.36	24.04	25.48
연평균	19.47	19.52	22.61	23.72	24.35	24.31



표 6 유통단계 가격차 비교, 2001~03년

	2001	2002	2003
생산-소매가격차(폐소/kg)	31.63	32.62	33.83
도매-소매가격차(%)	72.2	72.4	74
생산-도매가격차(%)	27.8	27.6	26

표 7 국민 1인당 연간 식육소비량, 1990~03년

단위 : Kg/년

연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990	12.7	11.5	9.7
1991	14.8	12.4	11
1992	15.8	12.3	11.5
1993	14.1	12	13.1
1994	15.7	12.9	14
1995	14	12.1	15.3
1996	14.9	11.9	14.9
1997	15.5	12.1	16.9
1998	16.3	12.8	18.6
1999	16.1	12.9	19.7
2000	16.1	13.7	20.6
2001	16.3	13.9	21.6
2002	17.1	14.3	22.3
2003(추정)	15.7	14.5	23.9

자료: 푸로마

닭고기 소비량은 쇠고기, 돼지고기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146% 증가를 보였다(표 7). 이는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닭고기의 가격 우위성 등에 의한 것으로, <표 8>과 같이 2013년까지의 식육 소비량 예측에서 보면, 쇠고기 소비량도 증가 경향에 있지만, 단연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8 국민 1인당 연간 식육소비량 전망, 2004~13년

단위 : kg/년

연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004	22.5	13.5	25.7
2005	23.1	13.5	26.5
2006	23.5	13.7	26.9
2007	23.6	13.9	27.1
2008	23.8	14.2	27.2
2009	24.1	14.3	27.5
2010	24.4	14.3	27.8
2011	24.7	14.4	28.2
2012	24.8	14.5	28.4
2013	24.8	14.8	28.6

자료: 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4 Agricultural Outlook, University of Missouri.

<참고> 멕시코의 축산농가에 대한 국내 보호수준

멕시코는 다른 쇠고기 생산국에 비해,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는 낮은 수준에 있다. 이에 더해 가격지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2001~03년에 멕시코 농업생산액에 대한 농업보호수준지표(Producer Support Estimate)는 21%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의 OECD 평균 31% 보다 낮다. 미국의 농업보호수준 지표는 18%, EU가 37%, 일본은 58%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로 환산하면, 1991~1993년의 3.1%로부터 2001~2003년 1.3%까지 감소하였다.

### 1.5.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상황

현재 멕시코에서는 BSE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제역에 대해서도 1954년을 마지막으로 재발생 보고는 없다. 그렇지만, 주변국의 가축질병 발생상황과 무역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질병이 앞으로 멕시코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멕시코 농목어업부(SAGARPA)에 의하면, 멕시코 국내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우결핵병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1996년부터 국가 및 지역 레벨에서 박멸을 목표로, 연방정부에 의한 소의 질병진단과 감찰, 도축장 감시, 가축위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코아이라, 치와와, 누에보 레온, 키타나로, 소노라, 타마우리파스, 유카탄 주는 우결핵병의 박멸과정이며, 발생율은 각주 소 사육두수의 2% 이하까지 억제되어 있다. 기타 지역은 박멸대책 초기과정에 있으며, 발생율이 전자보다 높고, 정부의 우결핵 감시주로 되어 있다. 미국 농무성(USDA)는 멕시코 국내의 18개 지역을 우결핵병 발생율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중 12개 지역에 대해 USDA감시 하에 미국 수출용 생우 수출을 인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 나라는 부루셀라병 발생국이기 때문에, 1995년부터 연방정부에 의한 부루셀라병 박멸 캠페인을 개시하여, 소노라 및 유카탄 주가 박멸과정에 있으며, 나머지 주는 박멸대책 초기과정에 있다.

## 2. 무역상황

### 2.1. 국별 쇠고기 수출입

멕시코의 수출은 수입에 비해 매우 적지만, 2004년을 보면, 미국으로 수출이 수출량 전체의 87.1%, 수출액으로는 전체의 92.2%를 점하며, 멕시코의 수출동향은 미국 수요동향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 미국으로 수출된 쇠고기의 대부분은, 멕시코로부터 이민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멕시코 식품재료를 취급하는 슈퍼나 음식점 등에 판매되고 있다. 미국·캐나다에서 BSE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국인 멕시코에서 쇠고기 수입정지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004년에는 전년의 약 52배에 달한 1,154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일본으로의 수출도 수출량이 2003년 5톤에서 2004년 115톤으로 증가하였다(표 9).

수입량은 미국·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렇지만, BSE 발생에 따라 이제까지 증가경향에 있었던 수입량은 감소하여, 2004년 수입량은 BSE 발생 전(2002년)에 비해 60% 감소한 26만 6,000톤이었다(표 10).

표 9 국별 쇠고기 수출량, 2000~04년

단위 : 톤, %

국명	2000	2001	2002	2003	2004	점유율 (2004년)
미국	1572	1401	4779	7917	10429	87.1
한국	0	0	0	22	1154	9.6
쿠바	1	a	a	a	150	1.3
일본	25	22	71	5	115	4
칠레	0	0	0	0	36	0.4
구아테말라	a	0	0	0	36	0.3
푸에르토리코	0	0	913	0	22	0.2
도미니카공	0	0	a	0	16	0.1
캐나다	0	0	0	a	9	0.1
벨기에	0	0	0	4	a	0
기타	a	0	0	1	1	0
계	1597	1423	5763	7949	11979	100

주 : a 0.5톤 미만

자료 : Mexican Secretary of the Economy

표 10 국별 쇠고기 수입량, 2000~04년

단위 : 천톤, %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점유율 (2004년)
미국	301.1	305.2	355.9	299.7	157.9	59.5
캐나다	47.6	63.9	65.1	28.2	83.7	31.5
뉴질랜드	3.4	7.5	4.4	7.8	8	3
호주	9.3	10	11	9	6.5	2.4
칠레	a	a	a	a	4	1.5
니카아구아	0.9	2.1	1.7	2.3	2.1	0.8
코스타리카	a	0.2	0.5	0.7	1.8	0.7
파나마	2	1.3	2.5	2	1.5	0.6
기타	18.9	0.6	0.6	0.3	0.1	b
계	383.2	390.8	441.7	350	265.6	100

주 : a 500톤 미만. b 0.05 퍼센트 미만

자료 : Mexican Secretary of the Economy

## 2.2. 품목별 쇠고기 수출입

멕시코에서 수출된 쇠고기 제품의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수입국까지 비교적 높은 유통 코스트를 경감하기 위해 국내의 낮은 노동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붙인 뼈없는 부분육 형태이며, 쇠고기 제품 전체의 59.9%를 점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조리상태의 상품 또는 통조림 등 보존식 형태에 의한 수출도 전체의 28.8%나 된다. 또한, 멕시코의 수출통계에서는 냉장, 냉동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표 11). 멕시코가 수입한 쇠고기 제품의 71.3%가 냉장 발골 부분육이며, 혀, 간장 및 기타 부산물이 전체의 20%나 되며, 이들 전체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표 12).

## 2.3. 생우 수출입

멕시코는 과거 5년간, 연평균 120만두의 송아지 및 비육용 육성우를 미국에 수출, 미국의 중요한 공급국이다. 생우 수출의 약 반이 90kg 미만의 송아지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320kg 이상의 비육용 육성우이다. 일부 미국 도축장으로 직행하는 소도 있지만, 이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표 13).

표 11 품목별 쇠고기 수출량, 2000~04년

단위 : 천톤, %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점유율 (2004년)
발골 우육	1099	1399	2054	3681	7177	59.9
뼈있는 우육	-	-	-	20	451	3.8
내장(혀, 간 제외)	-	-	136	152	558	4.7
혀	-	-	-	-	191	1.6
간	-	-	-	-	150	1.3
기타 우육	498	24	5	-	-	0
조리된 우육제품	-	-	67	a	a	0
훈연염적건조육	-	-	20	31	6	0
기타우육가공제품	-	-	3481	4064	3446	28.8
계	1597	1423	5763	7948	11979	100

주 : a 0.5톤 미만

자료 : Mexican Secretary of the Economy

표 12 품목별 쇠고기 수입량, 2002~04년

단위 : 천톤, %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점유율 (2004년)
냉장지육(4분할포함)	9.1	7.9	6	2	a	0
냉장뼈붙은우육	18.2	16.2	18.8	13.4	a	0
냉장발골우육	240.5	257.9	306.6	230.3	189.2	71.3
냉동지육(4분할포함)	3.6	2.9	2.3	1.3	0.4	0.2
냉동발골우육	35.6	24.5	22.1	21	20.5	7.7
냉장내장(혀,간 제외)	6.8	0.9	1.1	0.7	1.5	0.6
혀	1	1.1	3.3	2.3	9.8	3.7
간	11	10.3	7.6	7.4	6.6	2.5
기타내장(상기제외)	55.4	65.5	70.5	67.6	36.6	13.8
훈연염적건조육	0.5	0.6	0.7	0.6	0.2	0.1
기타우육가공제품	1.7	2.9	2.9	3.3	0.7	0.3
계	383.4	390.7	441.9	349.9	265.5	100

주 : a 50톤 미만

자료 : Mexican Secretary of the Economy

표 13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생우 수출 두수 및 금액, 1995~04년

품목	두수(천두)	수입액(백만 미달러)
1995	1653	546
1996	456	122
1997	669	177
1998	720	206
1999	960	293
2000	1223	406
2001	1130	408
2002	816	301
2003	1240	471
2004	1371	543

자료: US Census Bureau

표 14 국별 생우 수입두수, 2000~04년

단위 : 두

국명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174,794	199,028	147,063	27,805	3,665
캐나다	14,576	11,718	10,784	3,228	0
우루과이	7,552	0	0	0	0
호주	8,005	13,904	24,144	2,552	29,573
니카라구아	22,549	26,168	17,593	17,264	28,444
파나마	3,300	3,250	1,500	0	0
기타	3,862	2,455	5,170	1,719	6,094
계	234,638	256,523	206,254	52,568	67,776

자료: Mexican Secretary of the Economy

수입 두수는 수출 두수에 비해 적지만, 미국, 니카라구아 등이 주요 생우 수입 상대국이다. 그렇지만, 미국 등에서 BSE가 발생함에 따라 그 두수는 2003, 2004년에 격감하였다(표 14).

#### 2.4. FTA 체결과 쇠고기산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은 멕시코의 농축산물부문을 포함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협정 체결 후, 약 10 년간에 걸친 미국·캐나다와 무역경쟁 결과, 수입초과라는 상황을 낳았고, 이에 따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쇠고기산업에서는 NAFTA 체결 후 국내생산량이 연평균으로 1.9% 증가하였으며, 근대적이고 효율적인 축산경영으로의 진입과 가축 개량 기술의 진전도 도모되었다.

그렇지만, NAFTA 체결 이전인 1990~93년의 4년간은 수출량이 수입량을 2만 1,000톤 상회하였는데 비해, NAFTA 체결 후인 1999~02년 기간에는 수입량이 수출량을 19만 1,000톤 상회하는 수입초과가 나타났다.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초과는 되지 않았지만, 수출량 증대에 대해 수입량 증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NAFTA 체결에 의해 국내 쇠고기산업은 발전을 보았지만, 미국·캐나다와

의 무역경쟁에서는 체결 후가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9월에 체결되어 2005년 4월부터 발효된 일·멕시코 경제제휴협정(일·멕시코 EPA)의 경우, 쇠고기분야에 있어서는, ① 2005년부터 2년간 시장개척의 한도(10톤), ② 2007년부터 3년간 관세할당제도(당초 3,000톤, 3년 후에 6,000톤)이 설정되어 있다. 적어도 대규모 식육처리시설(후술 참조)에게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용 쇠고기 제품의 수익률이 국내용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장래성에 기대를 걸고 있어,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소 식육처리산업의 개요

멕시코의 식육처리시설 규모와 식육유통 채널 등의 개요에 대해 정리한다. 멕시코에서는 식육처리시설의 규모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민간조사회사(푸로마사)가 청취조사를 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 3.1. 식육처리시설의 구분

국내 식육처리시설은 연방정부(SAGARPA)에서 승인된 것과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한 공영도축장 및 지역 소규모 도축장(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개설이 아님)의 3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 (1) 연방정부(SAGARPA)검사형(TIF : Federally Inspected Type) 시설

주로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대규모 시설이 인가대상이며, 연방정부가 정한 시설·기계, 위생관리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방정부가 TIF번호를 부여한다.

전국에서 100개 시설이 있지만, 북부지역의 누에보·레옹 주와 멕시코시 등에 많다. 여기에 식육제품 수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TIF시설만 가능토



록 되어 있어, 수출인가를 받은 시설에는 연방정부의 수의검사관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출하되고 있다.

## (2) 지방공공단체 개설 공영도축장 및 지역 소규모 도축장

SAGARPA에 의하면, TIF형 시설 이외의 도축장은 1,090개소가 있으며(2001년 10월 현재), 그중 40개소가 앞으로 TIF 후보로 될 등록도축장, 이외의 1,050개소가 지방공공단체 개설 공영도축장과 지역 소규모 도축장이라 한다. 1,050개소의 대부분이 냉장시설을 갖추지 못해 온도체(지육) 상태로 반출되고 있다.

## 3.2. 식육 유통채널

국내 식육유통 채널은 <그림 3>과 같으며, 도축장에서 70% 정도가 온도체(지육), 나머지의 약 30% 정도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으로 출하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공설시장으로 40%, 식육전문점으로 25%, 음식점·호텔로 5%, 슈퍼마켓으로 30%의 비유로 유통되고 있다. 공설시장 및 식육소매점의 대부분이 공영도축장과 지역 소규모 도축장에서 온도체(지육)를 구입하고, 음식점·호텔 및 슈퍼마켓은 TIF형 시설에서 주로 냉장·냉동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3. 연간 도축능력 상위 10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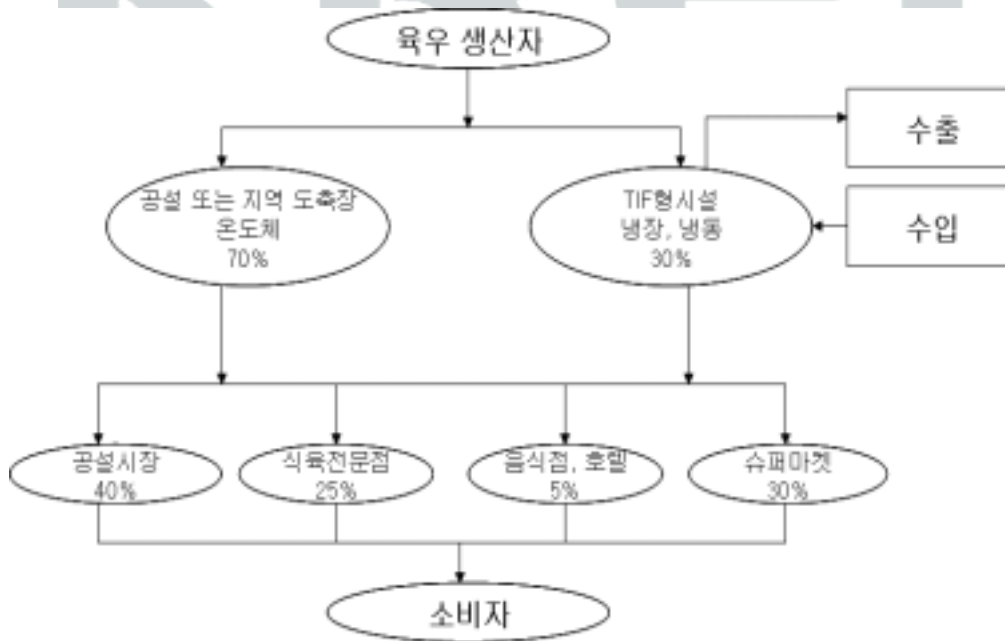
도축능력 상위 10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은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TIF형 시설로 인정받았으며, 그 중 약 반의 시설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다.

### (1) 수칸(SuKarne)사

제1위의 수칸사는 상위 10개사 중에서 유일하게 3개의 TIF시설을 가지고 있는 식육처리 가공회사이다. 시나로아 주 쿠리아카우(Culiacau) 시설의

1일 도축처리능력이 300두, 바하·칼리포르니아 주 멕시코(Mexicali) 및 누에보·레온 주 몬테리(Monterrey)의 시설이 380두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쇠고기 제품 수출을 개시한지 약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수출은 생산량의 6%를 점하며, 현재 그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회사는 일·멕시코 EPA 체결에 의한 쇠고기무역의 흐름을 타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일본으로의 수출량을 증대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의 시설능력이 낮고 수출 생산량 증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여, 적어도 1개 시설의 가동을 현재의 1 시프트제에서 2 시프트제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식육의 유통채널별 비중



## (2) 가나데라·비바·하마노스(Compania Ganadera Viba Hermanos)사

도축능력 규모로는 제2위이지만, 2개의 시설(타마우리파스 주 히메네스·타마우리파스 : Jimenes Tamaulipas, 주 몬테리 : Monterrey) 중 몬테리의 시설은 상위 10개사의 시설로는 유일하게 TIF형 시설이 아니다. 두 시설 모두 1일 300두의 도축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멕시코의 도시부(탄비코, 마사토랑, 아카블코, 칸쿤 등)에 5개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국내용으로는 슈퍼마켓에 55%, 도매점에 33%, 호텔·음식점에 15%의 비율로 쇠고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음식점체인 1사 및 도매업자 2사, 일본의 도매업자 1사에게, 2005년 2월부터 쇠고기 제품의 수출을 개시하였다.

이 회사의 현재 수출능력은 주당 250두(전도축능력의 7%)이며, BSE 발생에 의해 미국·캐나다에서 일본·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정지되어 있어, 현지점에서는 이 회사가 쇠고기 제품을 일본·한국으로 수출하는 우위성은 있다. 그렇지만, 두 나라의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그 우위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급한 시설확충 등에 의해 수출능력 증대를 꾀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 일·멕시코 EPA의 동향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용 전문의 새로운 식육시설을 매수하고, 몬테리 시설은 TIF형 시설 승인을 얻어 수출전용 시설로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쇠고기 시장 동향에 따라 미국 내에 식육시설 건설 또는 기존시설을 매수할 계획도 있다.

## (3) 칸즈·카란자(Carnes Carranza)사

이 회사는 소노라 주 하모시로에 1일 750두의 도축능력을 갖춘 시설을 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 EU로 수출인가를 받았다. 이 시설에서는 국내용 돼지고기 제품 제조도 하고 있다. 제품의 70%가 국내시장용이며, 나머지 30%가 해외용이다. 수출량은 최근 증가경향에 있다. 해외용은 미국이 주 수출선이며, EPA 체결에 따른 일·멕시코 쇠고기 무역확대를 감안하여, 일본으로의 수출도 앞으로 힘을 쏟을 예정으로, 일본 소비자의 수요에 맞

는 제품제공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최근 5년간 가축질병 발생 감소가 멕시코에서 수출량 증가에 기여하여 왔다.

#### (4) 후리고리휘코·엠폴카도라·칸즈·타바스코(Frigorifico y Empacadora de Carnes de Tabasco)사

타바스코 주 타바스코에 1일 500두의 도축능력을 갖춘 TIF형 식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후리고리휘코·엠폴카도라·칸즈·타바스코사는 앞으로 아시아시장으로 수출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관련 투자에 의한 생산코스트 증가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이다.

이 회사는 2004년에는 전생산량의 5%에 달하는 약 880톤을 한국으로 수출하였다. 수출량은 아직 적지만, 국내용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이회사의 마진율이 약 10%인데 비해, 한국 수출용의 이익률은 15~20%로 높아 이 회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 (5) 칸즈·산타·세실리아(Carnes Santa Cecilia)사

칸즈·산타·세실리아사는 레이 그룹(Grupo Ley)라는 수직적 조정에 의한 기업그룹의 쇠고기 처리가공부문으로 위치되며, 레이 그룹은 소 비육시설 1개소, 돼지 비육시설 5개소, 식육무역회사 1사를 가지고 있다. 시나로아 주에 있는 칸즈·산타·세실리아사 시설은 주당 2,500두의 도축처리 능력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능력의 60%에 상당하는 주당 1,500두 가동에 그치고 있다.

이 회사의 이익률은 약 12% 정도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현재, 식육가공은 프라이멀 컷(대분할)까지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설에 인접한 처리가공시설을 건설하여, 부분육가공부터 컨슈머 컷, 나아가서 케이스 레디 상품 제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제품 수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및 한국 식육수입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함과 동시에 연방

정부에 수출인가 신청수속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이 수직적 조정의 메리트를 살려, 아시아 시장의 욕구에 맞는 송아지 생산에서 비육, 제품제조 까지 일관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 소의 피드 룯 생산코스트가 멕시코 국내의 생산코스트에 비해 1할 이상 낮게 책정되어 있어, 앞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각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해금되면, 다시 힘든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6) 엠파카도라·칸즈·노테(Procesadora y Empacadora de Carnes del Norte)사

엠파카도라·칸즈·노테사는 도축처리능력이 1일 400두 처리시설을 멕시코에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 시설에는 9만두 규모의 수용능력을 갖춘 피드룯에서 연간 7만 2천두의 비육우가 반입되어 처리·가공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일본 수출용으로 매월 약 70톤의 쇠고기를 제조·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전 생산량의 10%를 점한다. 일본 수출용 제품은 립아이롤, 혀, 숏트 플레이가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이들 모든 제품은 냉동품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냉장 품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용 제품은 국내용 제품에 대해 이익률이 약 5% 높다고 한다. 전반적인 일본과의 EPA 체결은 미국과의 수출경쟁에 있어 멕시코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멕시코 수출인가시설의 대부분이 고객(일본 등)이 요망하는 위생 및 안전 조건에 합치되는 가축 및 쇠고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 (7) 디스트리비도라·칸즈·바지오(Distribuidora de Carnes del Bajío)사

디스트리비도라·칸즈·바지오사는 TIF형 시설을 1개소 소유하고, 주당 2,000두의 도축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품은 대분할, 발골 부분육이 주이며, 소량이지만 컨슈머 팩 제품도 취급하고 있다. 현지점에서는 제품은 전량 국내용이지만, 일본 및 한국 수출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찾아 적극적인 판

매공세를 하고 있으며, 구매의욕이 있는 일본·한국의 고객에 대해 샘플을 보내,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한국에 수출허가를 멕시코 정부에서 최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가 멕시코 쇠고기산업의 장래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WTO와 FTA 진전에 따라 보다 낮은 가격의 쇠고기 제품 제조가 가능한 나라들로부터의 수입공세에 이겨 낼수 있을까?이다.

#### **(8) 가나데리아·카마고(Ganadera Camargo)사**

가나데리아·카마고사는 치와와 주에 TIF형 시설을 1개소 소유하고, 1일 도축능력은 250~300두이지만, 현재의 가동율은 1/3 정도이다. 가축 집하두수가 증가하지 않아, 가동율이 상승하지 않고, 현재는 전량 국내용 제품제조를 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제품 구매 희망이 있는 한국의 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지만, 전술의 이유로 계약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 **(9) 엠파카도라·가나데라·치와와(Empacadora Ganadera de Chihuahua)사**

엠파카도라·가나데라·치와와사는 치와와 주에 TIF형 시설을 1개소 소유하고, 1일 도축능력 300두, 발골·해체능력은 1일 100두를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제조에서 유통, 소매판매까지 일관된 작업을 하고 있다. 멕시코 쇠고기산업의 장래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소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다른 쇠고기 생산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조코스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려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방목지에 투자하는데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방목지가 다른 용도로 택지조성회사에 구입되고 있음)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회사는 현재, 생산량의 5~10%,두수 환산으로 약 7천두를 수출하고 있으며,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일·멕시코 EPA 체결을 기회로 일본 수출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멕시코산 쇠고기는 일본 수출을

비롯하여 고객 수요에 맞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 (10) 엠파카도라·트레비노(Empacadora Trevino)사

몬테리에 1개소의 TIF형 시설을 보유한 엠파카도라·트레비노사는 1일 250두의 도축능력 및 1일 70두의 발골·해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쇠고기 제품의 약 40%가 일본 및 한국에 수출되며, 전사분할(프론트 쿼터), 발골 로인, 내장이 두 나라에 수출되는 주요 쇠고기제품이다. 한편으로 일본의 바이어로부터 상품 스펙의 요구는 엄격하여, 이제까지는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아시아 수출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회사의 수익에서 접하는 많은 부분은 일본·한국 등 아시아 제국과의 무역에 의한 것이며, 이들 시장에 대해 매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품질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HACCP 시스템 도입을 할 예정이며, 일·멕시코 EPA체결을 계기로 수출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활동에 대해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기대하고 있다.

## 4. 멧음말

이제까지 멕시코 쇠고기산업의 상황은 미국·캐나다에 가려져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북미지역에서의 BSE 발생과 일·멕시코 EPA 등을 계기로 멕시코의 쇠고기산업은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며, 쇠고기산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구조와 생산성, 수급상황, 가축질병 상황 등을 보면, ① 국내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 쇠고기 제품 수입이 필요하고, ② 이에 따라 수입초과에 의한 불균형한 무역수지를 보이고 있으며, ③ 높은 생우 수출도 미국의 수급동향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 멕시코의 쇠고기산업은 미국의 쇠고기산업 동향에 영향을 쉽게 받는 구조이다.

앞으로,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적어도 경감시켜 일본과 아시아  
제국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식육처리시설의 통폐합  
을 진전, 대규모 식육시설(TIF형 시설)로 집약을 할 것과 가축질병 예방조  
치를 강구한 후 계획적인 가축사육두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멕시코의 쇠고기 산업은 이들 과제를 넘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http://alic.lin.go.jp>에서  
(허덕 huhduk@krei.re.kr 02-3299-42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